

책에서 체험하는 우리 음악의 '소리깔'

대중문화 시대를 이끄는 책 ④

김헌선

경기대 교수·국문학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떠한 시대인가 자못 궁급해질 때가 많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얼굴이 진정한 우리 얼굴인가? 만화 속의 주인공 얼굴이나 마네킹의 얼굴이 진정한 우리 얼굴 생김새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서양인의 얼굴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필자가 너무나 긴장하고 있는 탓일까? 신윤복 그림이나 김홍도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얼굴은 분명히 아니다. 만화와 마네킹의 얼굴이 우리 실제 얼굴과 다른 것은 매우 심각한 자아상실의 증후라고 보인다.

만화와 마네킹은 사람이 만든 창조물이니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뒤틀림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나 요즘 텔레비전에 나온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금발머리를 발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제 한국인의 실제 얼굴까지도 일그러뜨리고 있으니 자아상실의 사례는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더욱 많이 찾을 수 있다.

골동품 취급받는 우리 음악

우리 음악의 실상 역시 만화, 마네킹, 스타들의 얼굴 생김새와 같이 본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서양에서 전래된 음악에 밀려서 골동품 취급을 당하면서 뒤편 구석에서 자욱히 먼지를 켜켜이 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음악의 서글픈 운명이다. 서글픈 숙명에 처한 우리 음악은 당분간 그 예전의 화려하고 위대했던 지위와 영광을 되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제 세계 음악의 판도는 크게 두가지 음악이 장악하고 있다. 하나는 귀족취향에서 비롯되어 절대적 지지를 받는 소위 클래식 음악이다. 이 음악은 철저하게 세련미를 추구하고 지적 호기심에 발흥하여 압도적으로 상층 지식인의 전유물로 자리잡았다. 또한 클래식은 서유럽에서 비롯되어 전세계의 음악계 판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고부가가치까지 겸해서 정신적·물질적 이득도 독차지했다.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발흥해서 미국에서 재가공된 대중음악이다. 흔히 팝송이라고 하는 이 음악은 전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국적인 유통질서를 구축한 불세출의 음악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에 랩이

세계음악의 판도는 귀족취향에서

비롯한 '클래식 음악'과 아프리카에서

발흥해 미국에서 재가공한 '팝송'이

장악하고 있다. 우리 음악은

서양음악에 밀려 골동품 취급을

당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과 원리를

재인식하기 위한 책이 손으로

꿈을 정도인 현실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음악의 모습을 본다.

니 레게니 하는 음악의 위세가 이러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대중음악의 시작은 단순하고 소박한 아프리카 리듬이었으나, 이제 전세계 청소년이 공유하고 있는 위대하고 인기 있는 음악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 음악의 판도를 놓고 볼 때에 우리 음악의 실상은 이 둘 사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 서양 음악의 위세에 눌려 기를 못 펴고 있는 것이 우리 음악의 현주소이다.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어야 하는가?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제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세계 음악계의 판도에 유념하면서 우리 음악의 값진 유산을 재발견하는 일이 우선 긴급하다. 무궁무진한 음악적 유산과 자양분을 재발견하고 가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은 우리 음악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 원리를 재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이러한 방면의 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 실태이다. 아직까지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밝혀줄 본격적인 책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은 장차 어느 천재가 나와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므로 그다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임시방편이지만 몇몇 저서는 심도있는 사상을 갖추고 있어서 특히 권할 만하다.

쉽게 쓴 '국악'책이 드문 현실

한명희의 《우리나라 우리문화》(조선일보사, 1994), 황병기의 《깊은 밤, 그 가야금



우리 음악의 세계를 쉽게 소개한 책이 아쉽다. 사진은 '서도 소리 감상회' 모습.

소리》(풀빛, 1994), 신대철의 《우리음악, 그 맛과 소리깔》(교보문고, 1992), 백대웅의 《인간과 음악》(어울림, 1992)이 있다. 위의 네 책은 우리 음악을 직접 연주하거나 심도있게 공부한 학자들이 썼다는 공통점이 있다. 거개가 딱딱한 이론서라기보다는 틈틈이 느꼈던 단상을 정리해서 어려운 느낌이 없는 책이다. 다만 백대웅교수가 쓴 책은 중고교생에게 안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조금은 위에서 말한 바와 어긋나기도 한다.

위의 네 책은 우리 음악을 직접 들어보지 않은 이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양음악의 소개서가 서양음악을 들었다는 전체를 세우고 썼듯이, 우리 음악 소개서 역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할 사실은 위의 네 책은 소설책은 아니니 차분하게 읽어야 그 맛과 멋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한명희 교수의 책은 우리 음악의 특질을 '왜 한배가 느린가'라는 식의 질문을 던져 독자로 하여금 빠져들 수 있도록 제1편을 꾸렸다. 제2편에서는 우리 음악 가운데 아름다운 곡을 택해서 부드러운 해설을 곁들였다. 한교수의 책은 유려한 필치로 한국인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에 의한 사실 열거가 지나쳐서 본디 음악에 대한 심미안은 결여되어 있는 약점이 있다.

황병기교수의 책은 가야금 연주자로 자리잡기까지의 유년 시절 체험과 그 이후 과정, 동서양 음악의 차이를 세련되고 우아한 필

치로 그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신비로운 세계에 갔다오게 하는 기이한 체험을 하게 한다. 또한 특유의 재치와 기발한 아이디어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독자에게 사무치도록 한다. 황교수의 가야금 소리만큼이나 독자의 심금을 울린다.

신대철교수가 쓴 책은 우리 음악에 대한 실제 체험에 근거한 것이다. 독자적인 용어가 돋보이고, 소리의 실례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우리 음악의 이해에 성큼 다가설 수 있다.

백대웅교수의 책은 우리 음악의 미학적 특징을 꼼꼼하게 규명한 보기 드문 명저이다. 서양음악도 깊게 이해했고, 우리 음악에 대한 통찰 역시 만만치 않다. 우리 음악의 실례 또한 풍부해서 음악 감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국악이 처한 현실극복이 과제

이 글을 쓰기 위해 네 저서를 뒤적이면서 필자는 사뭇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음악의 현단계가 장차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하는 현재적 고민과 아울러 우리 음악의 세계를 쉽게 이해하면서도 심미안에 이를 수 있는 책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 음악의 논리적 해명과 정서적 응축은 사실상 모순되는 작업이다. 우리 음악은 쉬운 언어로 번역될 수 있을까? 그것은 시일까, 논문일까. 문제는 서양음악의 위세가 대단하고 우리 음악은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